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5)

- 읽을 말씀 마 5:48, 고전 2: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완전이 실제로 존재하며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온전한 자”가 완전이 아닌 성숙한 자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왜 틀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복병!

저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을 완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완전을 부정하는 자들도 이 구절들을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에 대한 설교가 일방적인 공허한 주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2장 6절 -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온전한 자들”을 거의 모든 학자들이 성숙한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거나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완전에 대한 가르침의 견고한 기초를 놓기 위해 그 해석들이 왜 틀렸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즈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대해 “바울은 신앙이 어린 자들과 보다 성숙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에게 더 고차원적인 교리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진보되고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문맥에 주의하며 읽어 보면 먼저, 바울은 2장 1-5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 썼습니다. 그 후, 문제의 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만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13절), 육신에 속한 자는 못 받아들입니다(불신자). 신자들 중에서도 신령한 자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15절에 의하면 온전한 자와 신령한 자가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3:1).”**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온전한 자” 와 같은 그룹인 “신령한 자” 가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로이드 존스는 신령한 자 혹은 온전한 자가 성숙한 자를 뜻할 뿐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선명하고 강력한 논증으로 그의 주장이 참으로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왜 수많은 학자들이 그토록 완전을 부정하고 반대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자가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하며, 온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은 실제로 일종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절대 다수가 완전을 부정하는 이유는 ‘온전’ 에 대해 너무 높은 개념, 즉 스랍천사들도 찬양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완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사 6:1-3).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완전은 이렇게 초월적이고 도달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은 여섯 번째 반제의 결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은 마태복음 5장 21-48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팔복의 사람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전은 여기서 성장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된 상태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를 어린아이라 후자를 성숙한 자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 이 단지 상대적인 성숙이 아니라 완전을 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온전한 자” 가 문맥상 ‘어린아이’ 와 반대가 된다고 해서 “단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일 뿐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령한 자가 단지 어린아이라고 부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성장한 것(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아닌 청소년 수준)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온전을 뜻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를 6절에서 “온전한 자” 로 칭한 것입니다.

“온전한” 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 로 “완성한, 완전한, 성인이 된” 이라는 뜻입니다. 텔레이오스는 70인역본에서 히브리어 샬렘(온전하다, 완전하다), 탐(완성한, 완전한, 건전한)의 어형들의 역어로 사용되었으며, 구약성경에서 실제로 완전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의 여러 곳과 특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도덕적 완전’ 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본이 대다수 학자들의 해석과 다르게 “온전한” 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을 단지 성숙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로이드 존즈의 주장의 근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신령한 자’ 와 ‘어린 아이’ 가 대조되는 것을 보고 신령한 자가 성숙한 자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거슬러 올라가 2장 6절을 보고 ‘신령한 자를 그냥 성숙한 자라고 하지 않고 왜 온전한 자라고 했지? 상대적인 성숙이 아니라 온전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의 대조가 성숙이 아닌 온전을 의미하는 것은 유사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5:13-14).**”에서 “어린아이” 와 “장성한 자” 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성한” 의 헬라어가 완전하라에 사용된 것과 같은 “텔레이오스” 로, 장성한 자는 성인 즉 온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에베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4:13-15).**” 에서도 “온전한 자” 가 “어린아이” 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 원어가 “텔레이오스” 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이 이것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은 온전을 뜻합니다. 나아가서, “이르리니”와 “자랄지라”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그런 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 유사구절들의 “장성한 자”는 실제로 온전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장성한 자’가 “어린 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신령한 자”(혹은 “온전한 자들”) 역시 온전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의 “온전한 사람”은 교회라는 집단을 뜻하지 성도 개인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 중 앞의 것은 분명히 성도들 개인에게도 해당됨으로 온전은 성도 개개인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고전 3:2)”**에서, 밥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도 먹는데 신령한 자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닌 장성한 자(온전한 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장성한 자를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1절의 “어린아이”의 헬라어 “네피오스”에 “미성년자”뿐 아니라 “유아”의 뜻이 있고 그 뒤에 “젖”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유아를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 문구는 신령한 자가 온전한 자를 뜻한다는 해석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온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완전은 상대적 성숙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을 뜻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일상이 된 완전의 상태가 실현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 내 삶에서 시급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